

# 경주시의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

## - 원전 수거물 센터 입지 지역의 도시 계획 -

최연홍

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교수

정창훈

경인여자대학 환경보건과 교수

### 서론

2005년 11월 2일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경주 월성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게 되었다. 이로써, 1986년 영덕 지역에 1차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사업을 시작으로 19년 간 표류해오던 방사성 폐기물 정책이 드디어 그 험난한 여정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처분장 유치로 인해 경주 지역은 3,000억원의 포상금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부의 위치, 80억원에 달하는 년 반입비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용도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처분장이 위치할 경주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

의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 계획은 도시의 공간적 물리적 구성을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내는 과정이다(최연홍과 정경상, 2003). 도시 개발이란 도시 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 행위이다.

도시 개발의 필요성은 인구 성장으로 인한 주택 공급의 확대, 경제 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주거 업무 등 입지 선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이러한 도시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도시민 전체의 도시 활동을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하며, 문화, 위생, 보건 등 환경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필요 공간을 평면적, 입체적으로 하여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서 도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 및 생활 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 개발은 도시가 성장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 공간을 창출 공급하는 행위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택지 등의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거나, 기성 시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신개발 또는 신규 개발이라 하고 후자를 재개발로 정의한다.<sup>1)</sup>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한 공공(公共)적인 정책 개입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도시 개발을 둘러싼 효율성 개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경제원칙에 기반하여 장기적 효율성이나 사회적 효율성을 소홀히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전통적 효율성 개념은 세

1) 도시 개발론,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대간, 지역간 자원 배분의 공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시 개발의 과정에서 효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 정의의 실현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경주 지역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 개발의 호기를 맞게 되었다. 기존의 도시 개발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과 역사 도시라는 경주의 특성에 걸맞은 도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주시에서는 2004년 2020년까지의 경주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sup>2)</sup> 이 개발 계획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주시의 공간적 배치를 포함한 개발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유치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입지 후 경주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경주 지역의 도시 발전 모델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중산층의 도시이고, 또 하나는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한 균형적인 경주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경주의 도시 개발 계획을 살펴보고, 현재 경주 지역 도시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해외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건설된 지역의 현황과 지원 상황 그리고 도시 발전 과정 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경주 지역의 도시 개발 계획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연구 접근

경주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건천과 화천 지역을 개발의 축으로 설정하려는 계획을 도시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KTX역사가 들어서고, 3만-5만 인구가 들어와 살 신도시가 개발되면 한수원본부와 양성자가속기 연구소와 공장을 흡수할 만하다. 경주 중심가에 한수원이 들어서고, 포항과의 경계선에 가까운 안강 지역에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입지할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인 감포 지역을 어떠한 식으로 지역 주민이 만족하면서도 전체적인 도시 개발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한수원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이러한 도시 개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가 위치하는 지역의 도로, 주거 환경 등의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주 지역의 상황에 기초하여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 경주 지역의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안함을 목표로 한다. 분석 방법은 경주 지역의 현황 및 도시 계획 관련 문헌 및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입지 및 해외 원전수거물관리센터에 관련된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연구 질문과 연관하여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발전을 위해 양성자가속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부 등의 입지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가?

둘째, 3,000억원의 포상금과 80억원의 년 반입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 번째 연구 질문은 경주 지역의 공간 배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건립되는 월성, 감포 지역의 주민들은 한수원 본부를 폐기물 처분장 근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 발전 구상과 차이를 보인다. 선호 시설의 공간 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소지역 이기주의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도시 공간 구조의 대안과 더불어 소지역 이기주의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

2) 경주시, 2020 경주 도시기본계획, 2004

제를 동시에 고민해 보아야 한다.

1990년대 지방 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기존의 정부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도시 개발은 시민 단체와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 계획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도시 개발은 도시 개발을 행정부에만 맡기지 않는다는 일종의 계획 과정의 민주화 사상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 의식의 표본이다.

이러한 도시 개발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Nimby와 Pimfy로 대표되는 지역 이기주의와 이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전주상, 2000, 2002; 윤영차와 심문보, 2002).

넘비 증후군은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유해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넘비 증후군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각장, 화장장이나 방사능 오염 쓰레기 처리장 등과 같이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공공성 결핍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핼피 증후군(PIMFY Syndrome)은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이다. PIMFY는 'Please In My Front Yard'에서 나온 말이다. 세수원 확보나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구역 조정, 청사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자기 지역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넘비 증후군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최근 핼피 증후군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넘비, 핼피 등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연구가 수없이 많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혐오 시설의 입지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반대로 선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과열된 경쟁은 전체적인 공동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 집단 간의 감정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경주 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분류되었던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국민 투표를 통하여 수용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주시에 지원되는 한수원 본사 이전, 3000억원의 용도, 기타 지역 개발의 입지를 둘러싸고 경주시 내의 지역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 성장 관리 이론에 따르면, 도시를 기존의 확장적이거나 개발적 관점에서 관리적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개발과 보존의 장소와 시기 그리

고 방법 등을 조율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도시 정주 환경에서 질적인 향상과 공공성 증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도시 성장 관리 정책은 관련 계획간 일관성, 개발과 공공 시설 확충간 동시성, 압축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 개발, 질적 향상과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 정책, 역사 및 자원 보전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경기와 황재훈,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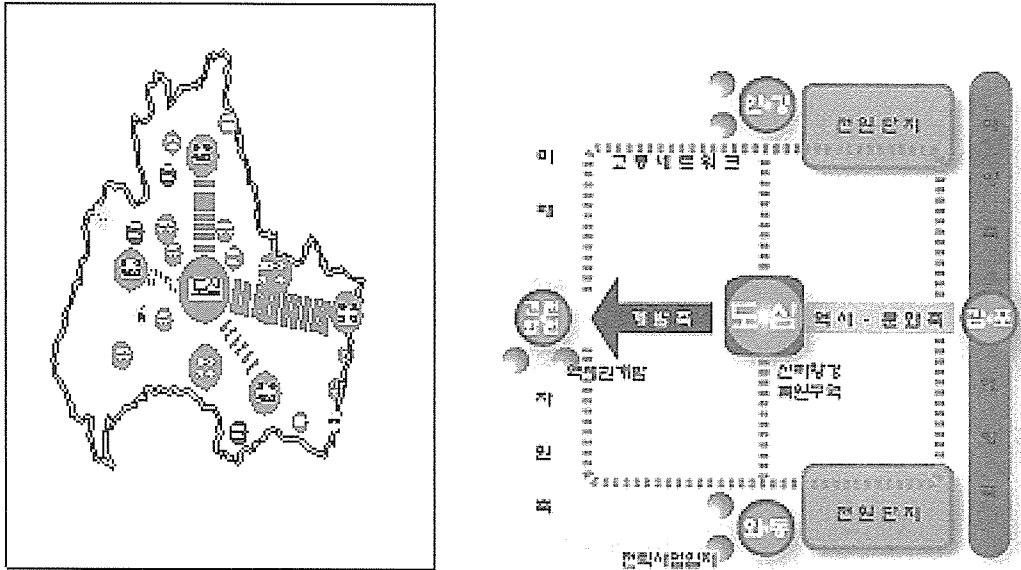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도시 개발 계획에 있어 개발 축과 보전 축을 어떻게 두는가에 관한 공간적 배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선호 시설 유치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시설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조명래(1996)는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장소의 정치로서 해석하고 생활 세계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특정 장소의 이익과 관련해 장소의 사회 세력이 벌이는 자연스러운 갈등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당사자들 간의 민주적인 대화의 부족 혹은 일방적인 의사 소통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대응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지원금의 사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들 지원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 공간 배치와 프로그램과 관



〈그림 1〉 경주시의 도시 구조 개념도 (2020 경주 도시 기본 계획)

런된 문제는 모두 경주 지역의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주 전체의 도시 발전에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경주 지역의 도시 개발 계획 중 눈여겨 볼 것은 경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공간적 도시 기반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경주시는 도시 전체를 다핵 구조형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는데 역세권의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구 시가지를 재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sup>3)</sup>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주 지역은 동해안권 광역 교통의 중심적 위치와 쾌적한 환경 요소를 보유하고 있어 포항, 울산 등 주변 도시의 산업·문화·행정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배치가 유리하며

시·군 통합에 따른 가용 토지 자원의 확보로 포항, 울산 공업도시와 연관된 공업 단지의 계획적 개발이 용이하다.

또한 관광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과 산악 및 해안 자연 자원이 조화된 국제적 관광 명소로 발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수거물센터 입지 후 경주를 어떠한 개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먼저 해외의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 도시가 어떠한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의 영향으로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다.

다음으로 한수원 본부 입지 등을

포함한 경주 지역의 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과학 도시 모델을 통하여 제안해 보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도시는 대덕 연구 단지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Oak Ridge 와 같은 과학 도시를 들 수 있다. 이들 과학 도시가 어떠한 개념에서 발생되었으며, 도시 및 주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과학 도시로서의 경주 지역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의 용도를 어떠한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문화 도시의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천년 고도인 경주 지역을 문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예전부

3) 경주시, 2020 경주 도시기본계획, 2004

터 시도되어 왔으며, 최근에 구체적 인 논의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고도를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원전수거물센터의 건립으로 인한 도시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소지역 이기주의의 극복을 통한 경주 도시 발전**

해외의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및 원전 수거물 관리 설비가 설치된 지역 발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설치된 후의 도시 발전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건설되는 주민 합의 과정이나 정부의 보상 등의 구체적 방법이 매우 상이해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건립 뒤 도시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입지 지역에 대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의 경우 찾아보기 힘들다. 즉, 이들 지역은 경주와 같은 대규모 경제적 지원 없이도 중·저준위 핵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였다.

일본의 경우, 시설 유치 후 로카쇼촌의 재정은 3배 가량 증대되었으며, 주민 소득도 시설 유치 이전 빈곤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국민 소득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실제 로카쇼촌의 경우 원전 수거 시설 입지 전인 1970-80년대에는 1인당 주민 소득이 23만9천 엔과 88만9천 엔으로 전체 일본 소득 58만6천 엔과 170만 6천 엔의 1/2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 입지 후 아오모리 현보다 높아 일본 전체 평균과 비슷한 소득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프라 시설 확충, 고용·소득 증대 등 직접적 혜택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시설 운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최연홍, 2005a).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건설 기간 중의 고용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 기간 중 약 8,700명의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현 주민 6500여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이후 운영 기간중에는 약 2500-3500 여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03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미국은 리치랜드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반웰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등 3개 지역의 관리 시설을 건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미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냉전 시대 핵무기 제조에 연관된 군사 기지나 시설이 이미 존재했던 한적하고 가난한 시골에 들어섰다.

유타 주의 경우 아주 낮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군사 기지와 상관없이 들어섰다.

미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75%를 처분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 반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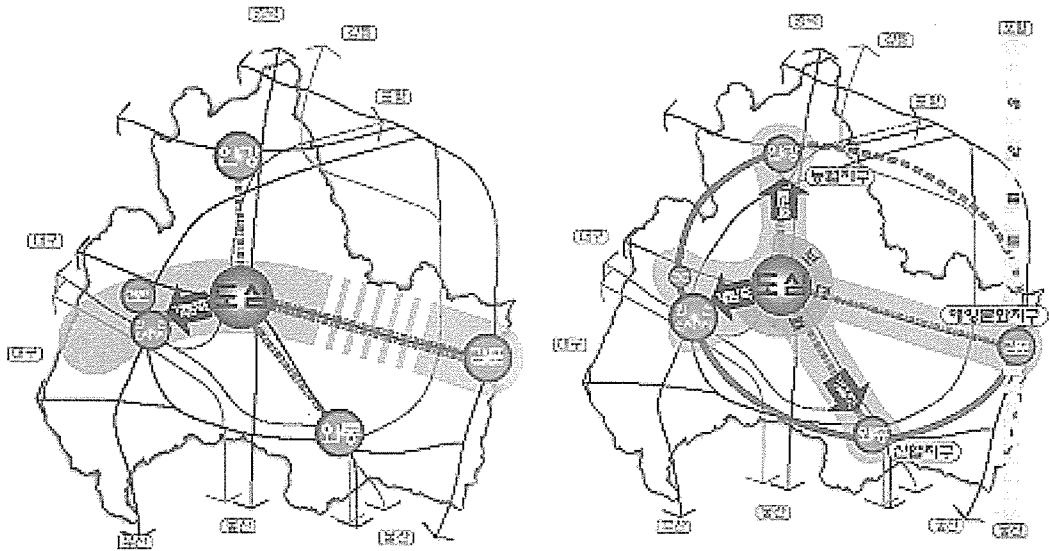
(Barnwell)군은 반입비의 일차적 수혜자이지만 인접 두 개의 군(Barnberg와 Allendale)도 120만 달러의 경제 개발금 공동 수혜자들이다(최연홍, 2005c). 이 돈은 반입비에서 나올 수도 있고 특별 예산에서 나올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지역의 경우 주로 반입비를 통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입지 지역의 경제 수준 등이 입지 전에 비해 입지 후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주 지역은 위 외국 사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에 들어오는 선호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소지역 이기주의의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행하여 나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주시는 건천을 새로운 경주의 발전 지대로 장기 계획에 정해놓고 있다. 건천으로 신도시를 집중시킬 것인가, 한수원과 과학 시설을 분산 배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도시 발전 철학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 발전 철학에 대한 논의의 바탕에서 경주시 장기 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장기 계획의 틀 안에서 경주의 도시 발전은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구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간적 입지에 대한 대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금에 대한



〈그림 2〉 경주시가 계획중인 공간 구조 대안: 1)동서일축형 2) 방사형

자료: 2020 경주 도시기본 계획, 2004.

효율적 이용에 관한 대안이다.

전자는 양성자 가속기와 한수원 본사를 도시 개발 축에 입지시키고 이 지역을 과학 도시의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3000억의 지원금과 년 80억원의 반입비를 문화 도시 경주로 키워 나가는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소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모델로서의 경주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경주시 도시 장기 계획의 재수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주시는 2004년 2020년까지의 도시 발전 계획을 작성한 바 있다. 경주 도시 기본 계획에 나타난 공간 구조의 설정 및 도시 개발 전략은 구도심에서 건천을 도시 개발의 주요 축으로 하고 국제적 관광 도시 개발, 도심 정비, 사적 정비, 교통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동해안 거점 도시, 역사 관광

도시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고속 철도 역세권 신시가지 조성, 보문단지과 구시가지 연계, 다핵적 공간 구조에 근거한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거점 공간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 기능의 재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도시 개발을 통해 경주는 포항과 울산을 잇는 삼각형 모양의 광역 생활권을 구성하고, 이들 공업 도시에 결여된 문화적 생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에 있는 동해안의 풍부한 관광 자원에 접근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문화 도시와 공업 도시 그리고 동부 경북의 농어촌 지역을 한데 묶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로 인한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등의 입지가 지역개발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도시 공간 기능의 재편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혜택을 보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지역 발전 체감 속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특히 원전센터 건설로 인해 관련 시설이 입지할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요 상호 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 계획상 중·저준위 폐기물 매립장이 위치될 지역은 양북면 봉길리로 감포 부도심 생활권이 위치한 지역이다.

경주시가 구상중인 공간 구조의 여러 대안 중 감포 지역의 개발을 포함한 공간 구조 대안은 동서 1축형과 방사형 대안을 들 수 있다(〈그림 2〉).

동서 1축형은 고속도로 역세권 화천 신시가지와 건천 생활권을 연계하여 부도심으로 성장하며, 기존 도심인 구 시가지와 대등한 공간 구조로 확립하는 방안이다.

동서축이 주개발축이 되므로 동

서의 건천 생활권-고속철도 신시가지-구시가지-보문단지-감포 생활권이 연결되는 주교통축이 개설되게 된다.

이 계획안의 경우 구시가지가 보존되고, 역세권이 적극 개발되며, 화천-구시가지-보문단지의 연계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고속 철도 화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개편되게 되어 구도심 기능이 약화되는 단점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해 방사형 대안은 중심 생활권, 안강, 건천, 화천, 외동, 감포를 연결하는 환상형 개발축으로 중심 생활권이 69% 가량의 생산 및 생활 기능을 담당하므로 건천, 화천 생활권으로 기능 분산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 있다.

도로축은 안강-화천-내남-외동으로 연결되는 우회 국도를 건설하고, 각각의 생활권에서 외곽으로 연결하는 방사형 도로망 골격을 유지하게 된다.

방사형 도시 계획의 경우 화천 역세권이 개발되고 부도심권의 공업기능 강화, 감포 해양의 개발 등 장점을 갖고 있으나, 안강과 감포의 연계가 미흡하고 부도심 개발로 인한 도심 기능 약화의 단점을 갖게 된다.

예컨대 건천 지역을 도시 발전의 주요 축으로 설정한 기존의 도시 계획을 가져갈 경우, 원전수거물센터 건설 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게 될 양북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공유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도시 장기 개발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 장기 개발 계획의 수립 내지 기존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

## 2. 과학 도시 경주

경주시의 도시 개발에 관한 핵심 문제는 크게 공간적 배치에 관한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공간 문제와 아울러 경주 지역의 도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의제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도시 개발의 비전에 관한 문제이다.

선호 시설을 어느 곳에 입지하는 가 하는 문제는 해당 지역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성자 가속기와 한수원 본사를 지금 도시 개발 계획상 개발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 예컨대 건천에 집중하여 위치하게 하는 것과 경주 지역에 분산하여 배치하는 것 중 어떠한 방법이 경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면밀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집중된 도시 개발 모델의 예로 과학 도시(Science Town)를 들 수 있다. 과학 도시는 과학 및 산업과 연관된 교육, 연구 기관 등을 한곳에 집적하여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획 도시이다.

이러한 과학 도시의 전형적인 모델로 우리나라의 대덕 단지를 들 수 있다(오덕성과 강병주, 2002). 또한 미국의 과학 도시 Oak Ridge를 들 수 있다.

경주 지역의 발전 축에 양성자 가속기와 한수원 본사 등의 이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과학 도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가. 대덕 연구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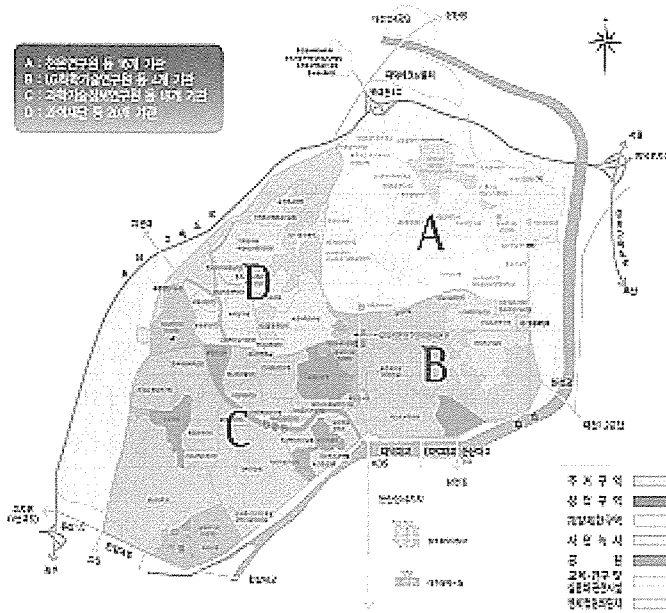
대덕 연구 단지는 1970년대 세계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선진국의 기술 보호주의 강화로 인하여 주요 핵심 기술의 이전이 기피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주적인 과학 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단지 설계가 계획되었다(노태천, 1997).

전체 면적이 약 840만평(27.8km<sup>2</sup>)인 대덕연구단지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또한 국토 개발 계획의 주개발축인 서울-부산과 영동-호남축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의 중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덕연구단지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구상을 반영했으며, 국토 공간상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입지함으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접근성을 갖춘 지리적으로 양호한 교통 인프라와 인접 도시와의 연계 등의 조건을 갖춘 훌륭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강병수, 2003; 기영석, 2004).

2004년 말 현재 대덕연구단지 내에는 83개 기관과 172개 벤처기업



<그림 3> 대덕 연구 단지 조감도

산업발전에 연계된 도시 개발 계획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4)</sup> 다만 대덕 단지가 대전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표 1>에서 보듯이 대전의 산업 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다른 대도시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분열의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새로이 경주 지역에 건설될 과학 도시는 경주의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직접적이며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Oak Ridge

Oak Ridge는 미국의 다른 비교 가능한 주에 비해 많은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주로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현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는 Oak Ridge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곳은 미국에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이다.

Oak Ridge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원자폭탄의 주재료 생산품을 개발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지금 Oak Ridge는 테네시주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

이 입주해 있다.

대덕연구단지의 성과로는 첫째, BT, IT 등 원천 및 기반 기술이 성장과 논문, 특허 등 지적재산권 창출을 통한 첨단 과학 기술 지식의 생산과, 둘째, KAIST 등 단지 내 5개 고등 교육 기관을 통해 고급 과학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다른 연구 기관에 대한 고급 연구 인력의 공급 기지 역할(국내 총R&D 인력 및 박사 인력의 10%) 수행, 셋째, 메모리 반도체, 표준형 원자로 벤처 기업 지원 등 성장 동력인 핵심 원천 첨단 기술 창출, 넷째, 과학 기술 정보 데이터 베이스 보급, 국가 표준 기술의 확립·보급, 과학 기술 문화 창출·확산 등 국가 과학 기술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정적인 연구 학원 중심에서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동화 단지로 발전, 승화하는 개발 방향을 설정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덕밸리 선포식을 갖게 되었다.<sup>4)</sup>

경주 지역의 경우 대덕단지과 같은 과학 도시라는 테마로 개발할 경우 한수원 본사와 양성자 가속기 등을 집적된 형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대덕단지는 이미 30여년 전 정부의 국토 계획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주 지역도 지역 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 연관 지역의 산업화 계획과 연계시켜간다면 지역 경제 개발 및

4) 대전광역시 시정 백서, 2005.  
5)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특구 육성 종합계획, 2005.



27,387 명이 92 평방마일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미 연방 정부에서는 Oak Ridge를 풍부한 물과 전력을 이유로 원자력 연구를 위한 도시로 지정했다.

또한 언덕과 계곡에 덮여있는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1,000 가구가 이주했다. 1943년 당시 이 지역은 약 50,000여명이 살고 있었다. Oak Ridge는 과학과 에너지에 관련한 미국 박물관이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 박물관에서부터 전시 프로그램, 워크숍 등에 이르기까지 과학, 문화,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Oak Ridge 국립 연구소는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등의 비원자력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Choi, 2005). 경주 지역 역시 과학 에너지 도시를 발전 계획의 하나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과학 도시인 Oak Ridge를 한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처분장예의 원자력 연구와 개발 관련 센터의 건립은 혐오 시설 입지 지역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과학 도시로 제고하게 만든다.

예컨대 에너지 종합 연구소의 건립 등이 그것이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열융해로 사업 등과 같은 첨단 에너지 관련 연구에 있어 원자력 폐기물은 과학 도시의 한 부분이 되게

<표 1> 대전의 산업 구조

구 분		2000. 10.	2004. 12.
인 구		1,390천명	1,450천명
경제 활동 인구		588천명	790천명
산업 구조	1차 산업	21.0천명 (3.6%)	22.1천명 (2.8%)
	2차 산업	80.0천명 (13.6%)	139.2천명 (17.6%)
	3차 산업	487.0천명 (82.8%)	628.7천명 (79.6%)

자료: 대전광역시

된다. 도시의 인구는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그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이는 높은 세율 지불로 이어져 도시와 지방 정부를 풍성하게 한다. 양질의 교육 시스템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오는 2008년 말 경주에 방폐장 건설을 완료하고 2009년 한수원 본사 이전, 2012년에는 양성자가속기 건설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 개발 사업은 가속기 시설 10만여평, 배후 단지 20만평 등 총 3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860여명의 전문 인력과 30개 이상의 전문 기업이 함께 창출된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제2원자력병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설립, 에너지·환경 관련 기업, 연구 시설까지 유치, 에너지·환경 기업도

시로 조성될 전망이다.<sup>6)</sup>

도는 우선 경주에 건설될 한수원 본사 등을 축으로 인근 포항시의 포스텍(포항공대)·포항산업과학연구원·포항 테크노 파크, 영덕 풍력단지(24기 39.6MW), 울진 원전 단지(6기) 등과 연계한 신에너지 산업 벨트를 경북 동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풍력 및 태양광 등 에너지·환경 기술을 주도할 '첨단퓨전기술연구소'를 설립, 재생 에너지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sup>7)</sup>

이러한 주변 여건으로 보았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을 에너지 클러스터로 묶고 경주 지역은 에너지·환경 분야의 과학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 시설 입지를 놓고 벌어지는 소지역 갈등 문제의 해결이다. 가장 합리적인 지역 결정 방법은 시설이 갖추어야 할 입지 조

6) 백상승 경주시장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 사업 추진으로 3조 6300여억원의 직접 효과와 함께 2만 9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모두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완공되면 에너지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한 첨단 과학 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고 자신했다 서울신문, 2005년 12월 28일.

7) 경상북도 전략산업기획단,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동해안 발전 전략 워크숍, 2005년 12월 8일.

건을 가장 잘 구비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리적,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최적지가 선정될 수 있다는 근거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공 시설의 입지 조건 조건에 대해 유치 희망 지역 간에 상호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방법은 공공 시설 입지로 생기는 이익을 둘러싼 렌트 추구를 부추기게 된다(김석태, 2003).

선호 시설 유치와 관련된 렌트 추구는 시장에서의 렌트 추구가 아닌 비시장적인 것이고, 개별적인 렌트 추구가 아니라 집단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는 선호 시설 유치에 드는 비용과 유치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호 시설의 유치로 생기는 렌트는 시장에서와는 달리 경쟁을 통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경주 지역의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 가속기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양상도 결국은 선호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쟁점 현상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주의 도시 개발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호 시설의 입지 결정과 관련된 경제적 이득은 부담금이나 조세, 혹은 자발적 기부 형태로 사회적으로 다른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입지 지역에서 나온 이익을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3. 문화 도시 경우

역사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발상은 산업 혁명 이후 도시속의 삶의 기능이 열악해져 과거의 인간적 문화가 개성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환경의 구성 요소는 대체로 역사적 건축물, 구조물, 유물, 유적, 사적, 민속, 전통 경관 등이다.

도시에 있어서의 역사성은 입지 환경, 설계 요소 등 도시를 풍부하게 하는 요소가 되며, 역사 도시의 공간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역사성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 속의 역사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환경으로 재구성하는 교육적 관점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산업의 육성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신라의 수도이며 천년의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도 경주는 문화사적·민족사적 가치 체계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 도시로의 완벽한 개발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조세환, 1993).

문화관광부는 2005년 7월 경주의 관광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국책 사업인 '경주 역사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경주를 지속 발전하는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선도 사업비 3천500억원을 투입하고 이어 2010년~2019년에도 재원을 집중 투자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역사 도시 선정을 통한 보존 지구 지정, 옛 도시 복원 등을 통해 역사 도시를 보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구시가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서안이나, 신도심을 설치해 역사 지구를 보존한 낙양, 북경 등이 있으며, 일본의 역사 도시 나라의 경우 중앙 정부의 지원 아래 흥복사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존하였으며, 동대사는 민간 자본에 의해 복원되었다(엄기철, 1995;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경주 역사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은 사업의 기반이 되는 경주가 스스로 2천년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급증할 역사·문화·체험 관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과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첨단 과학 도시와 역사 도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첨단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이다. 거기에 문화관광부는 황룡사와 월정교 복원에 겨우 3억원을 교부세로 할당해 놓았다니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2005~2009년 선도 사업비 3천500억원 등 전체 3조2천800억원(기본계획서 제안 금액)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에 투입할 재원 가운데 지방비 비율은 42.3%를 차지해 재정 자립도가 30% 정도인 경주시가 부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sup>8)</sup>

이점에서 경주를 아끼는 사람들의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신도시 건설이나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건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역사 도시 개발에 재투입하는 등의 결단은 이 지역을 문화 도시로 만드는데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

3,000억원의 포상금이나 반입비를 경주시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면 그 돈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황룡사 재건 등의 문화 도시 건립을 위한 초석을 세우는데 사용된다면 경주는 천년 고도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더 큰 재건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9)</sup>

###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미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은 냉전 시대 핵무기 제조에 연관된 군사 기지나 시설이 이미 존재했던 한적하고 가난한 시골에 들어섰다. 유타 주의 경우 아주 낮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군사 기지와 상관없이 들어섰다.

경주 월성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유일한 유인 요소로 작용했고, 원전이 그동안 안전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다른 유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주의 낙후한 경제가 가장 큰 유인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경주 월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먼저 경주 지역을 대전의 대덕 단지나 미국의 Oak Ridge와 같은 과학 도시, 환경 도시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될 과학 도시는 경주 지역 발전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sup>10)</sup> 또 인접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이 계획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 혁신 클러스터 사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로카쇼무라에는 풍력 발전기가 44기 돌아가고 있는데 2개의 회사가 각각 22기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전기는 동북전력회사로 팔린다. 월성 근처에 풍력, 조력 발전기를 세울 수 있다면 원전과 함께 대체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이미지도 좋을 것 같다.

로카쇼무라는 가난한 농·어촌이

었는데 1970년대 일본 석유 비축 기지가 들어선 마을(탱크51기, 총용량 570만 kl)이 되었고, 1992년부터 원자력 산업의 마을이 되었는데 이제 풍력의 마을이 되었고, 문화적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변하고 있다.

경주의 안전과 경제 발전은 앞으로의 원자력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년 고도인 경주의 문화적 상징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 지역을 관광도시, 문화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3,000억원 지원금과 년 80억원-85억원에 이르는 반입비의 일부는 경주의 경제 발전과 문화 도시, 관광 도시를 위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3,000억원은 경주 년 예산의 70%에 해당되는 큰 돈이다. 그러나 경주시의 숙원 사업인 황룡사를 복원하기도 3,000억원으로는 벅차다. 그 돈을 그렇다고 경주시의 일반 수입으로 편입해서 쓴다면 그 막대한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3,000억 포상금은 경주라는 역사 도시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당나라 도시, 수조(소주), 항조우(항주)에 가면 당대의 절들이 최대의 관광지가 되어 있다. 황룡사 역시 이와 같이 복원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라의 영광을 재현하는 길이다.

8) 동아일보, 2005년 12월 26일.

9) 최연홍, 삼성기금 어떻게 쓸까, 헤럴드 경제, 2006년 3월 10일.

10) 최연홍, 방재장 마을을 “과학도시”로 바꾸자, 세계일보, 2005년 10월 2일.

경주·월성엔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의 도시를 어떠한 식으로 발전시키느냐는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지역에 들어설 여러 시설의 입지를 놓고 많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체 경주와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발전 모델의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공간적 배치가 중요하다.

월성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 그 인근에 저준위 폐기물 처분에 필요한 시멘트·콘크리트 공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양성자 가속기가 원전이나 폐기물 처분장 인근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다면 경주 중심가나 다른 연구기관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수원 본사의 경우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최적화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과학 도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입지에 있어 당위적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천년고도인 경주의 경관과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주를 안에서 보면 대구 쪽, 포항 쪽, 울산 쪽으로 난 제법 큰 땅이다. 한수원과 양성자가속기가 경주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는 경주 밖의 사

람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경주 안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적화된 입지 지역을 선정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른 지역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경주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예컨대, 한수원이 건천으로 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세입을 월성과 안강으로 가져가도록 하면 된다. 건천의 부동산 세율을 높이고 소득세, 판매세를 월성과 안강으로 가져가면 된다.

아직까지 이들 양성자 가속기와 한수원 본부를 둘러싼 입지에 대한 결론은 없다. 그러나 이들 입지를 포함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경주 지역의 도시 계획이 향후 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최연홍, 2005b).

이밖에 경주의 이웃인 울산시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가장 가까운 도시로서 경주가 갖는 혜택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라와 있는 갈등 사례다.

그러나 경기도도 그 혜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나누어 가질 것이 있으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울산은 신흥 공업 도시이다. 경주와 얼마나 나눌 것이 있는지 도시 재정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sup>11)</sup>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설 경주 지역의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분장의

선정 과정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소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한 도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과학 도시를 제안하였다. 또한 포상금과 반입비를 경주 지역을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고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주시의 도시 계획 수립과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도시 계획이 경주시 전체를 위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 님비 및 핼피로 대표되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선호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핼피나 혐오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 현상은 지역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가 됨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지켜보아왔다. 다행히 경주 지역은 님비로 대표되는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하는 님비의 극복 사례를 보여주었다.

핼피 현상의 극복은 지역 개발의 이익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호 시설의 입지 결정과 관련된 경제적 이득을 부담금이나 조세, 혹은 자발적 기부의 형태로 사회적으로 다른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분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러한 계획이 주민의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 경주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한 대표적인 과학 문

11) 최연홍, 경주발전, 철학 논의부터, 한국일보, 2006년 1월 27일.

화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이는 경주를 위하는 길 뿐 아니라, 한국을 위하고 과학 기술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사사〉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원자력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김석태, 2003, 선호(PIMFY)시설 유치를 둘러싼 렌트 추구와 렌트의 사회적 환원, 한국 행정학보, 37, 77-94.  
 노태천, 1997, 대덕연구단지 연구환경과 발전방향,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2, 156-169.  
 오덕성, 강병주, 2002, 계획형 과학기술도시를 통한 기술 중심의 지역혁신 정책, 국토계획, 37, 243-260.  
 엄기철, 1995, 외국의 역사도시 보존과 관리사례, 국토정보, 92-97.  
 이경기, 황재훈, 2004, 청주시 도시공간 재구성 및 발전방향, 충북개발연구, 15, 21-37.  
 윤영채, 심문보, 2000,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2, 371-388.  
 전주상, 2000,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목동, 강남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

275-295.

전주상, 2002, 입지갈등의 구조 분석- 강남쓰레기 소각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 239-263.  
 조명래, 1996,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갈등, 지역사회개발연구, 21, 27-40.  
 조세환, 1993, 경주의 역사성과 도시개발의 조화방향, 도시문제, 48-60.  
 최연홍, 정경상, 2003, 신행정수도의 도시계획, 한국자치행정연구집 3호, 83-115.  
 최연홍, 2005a,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룩카쇼무라 - 경주 월성의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산업, 274호.  
 최연홍, 2005b, 경주의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275호.  
 최연홍, 2005c, 미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소재 지방정부와 도시, 276호.  
 Choi, Y. H., 2005, Nuclear Waste Management: For Citizens' Reasonable Acceptanc,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9(2), 225-261.  
 보고서 및 언론 보도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특구 육성 종합계획, 2005.  
 구미시, 구미시 통계연보, 2004.  
 국정브리핑, 2005.12.15.  
 경상북도 전략산업기획단, 신에

너지 산업 육성과 동해안 발전 전략 워크숍, 2005.

경상북도청 보도자료, 2005.11.  
 경주시, 2020 경주 도시기본 계획, 2004.  
 경주시, 경주시 통계연보, 2004.  
 내일뉴스, 2005.11.9.  
 도시 개발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동아일보, 2005.12.26.  
 대전광역시 시정 백서, 2005.  
 대전광역시 지역 혁신 발전계획서, 2005.  
 세계일보, 2005년 10월 2일  
 한국일보, 2006년 1월 27일  
 헤럴드 경제, 2006년 3월 10일  
 홈페이지  
[www.pref.aomori.jp/iter/](http://www.pref.aomori.jp/iter/)  
[www.ddc.re.kr/](http://www.ddc.re.kr/)  
[www.4energy.co.kr](http://www.4energy.co.kr)  
[www.gyeongju.go.kr](http://www.gyeongju.go.kr)  
[www.barnwellcountysc.com;](http://www.barnwellcountysc.com;)  
[www.sccounties.org/counties/profiles/barnwell-profile\\_files](http://www.sccounties.org/counties/profiles/barnwell-profile_files)  
[www.sciway.net/data/county-population/barnwell.html](http://www.sciway.net/data/county-population/barnwell.html)  
[www.census.gov](http://www.census.gov)  
[www.envirocareutah.com/pdf/utahbenefits.pdf](http://www.envirocareutah.com/pdf/utahbenefits.pdf)  
[www.co.tooele.ut/TooeleX.htm](http://www.co.tooele.ut/TooeleX.htm)  
[www.washington.edu](http://www.washington.edu)